

여수시, 여섯 번째 여수관광웹드라마 '윤슬' 촬영

5일간 금오도 비렁길·여수섬섬길 등 비대면 여행지 배경 선정

고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1500년 시공 넘나드는 판타지 로맨스

올해 서울웹페스트에서 웹드라마 '호점몽'으로 베스트드라마상을 거머쥔 여수시가 새로운 웹드라마를 촬영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여섯 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윤슬' 제작을 위한 현장촬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슬의 사전적 의미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500년의 시공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남자주인공)과 백제 귀족 가문의 영에 별녀(여자주인공),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3명의 주인공들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퓨전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답게 이번 웹드라마 주요 촬영지를 금오도 비렁길, 여수섬섬길과 같은 비대면 여행지로

선정했다.

특히 돌산읍 큰골등대의 해상 전경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호점몽'과 같이 이번 작품에서는 가사리 갈대밭, 장척과 이천마을에 새로이 조성된 포토존 등 여지만 갖노을길의 아름다운 일몰 전경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흥국사, 은적사, 선소유적 등 여수의 유서 깊은 명승지도 영상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



민과 관광객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담은 웹드라마를 통해 랜선여행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가 올해 발표한 여수관광 웹드라마 '호점몽'이 오는 12월 개

최되는 제4회 2020 아시아웹어워즈에 후보작으로 공식 선정되면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102편의 웹영화 작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뜻깊은 '개관 10주년'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조성된 고흥군(군수 송귀근) 청소년문화의집이 11월 24일 뜻깊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고흥군에서 설치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24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과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기관 선정,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과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인증기관, 여성가족부·전라남도·고흥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해 진행되는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 모델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최우수 2회', '우수 3회'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송귀근 군수는 "올해는 청소년들과 함께해 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10년을 도약하는 뜻깊은 날이라 생각한다"며 "청소년문화의집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키위 아직도 안 먹어봤니"

국내 최대 생산량... 친환경 재배 농법 맛·영양·품질 최고



키위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의 '보성키위'가 입소문을 타고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국산 키위가 수입 키위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보성키위'를 대한민국 최고의 키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키위 생산 단지 육성 사업, 1시간 1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키위 농업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키위 재배 면적의 17.2%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군은 단일 시군에서는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1천개 가까운 키위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키위를 재배해 전국 유통량의 20%가 넘는 키위를 공급하고 있다.

보성군은 판매량 증진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골드, 레드 계

통의 품종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맛과 생산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재배 안정성이 높은 국내 육성 '해금'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 고품질 키위 생산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저온·서리피해 극복 시설 등을 설치해 30%정도의 저온피해를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과원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 팜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 작물 생육환경을 조성했다.

소비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제 농업박람회 등에서 보성키위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며 꾸준히 보성키위 알리기에 힘써왔다.

보성군 관계자는 "특히 보성키위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고, 오래된 재배 역사만큼 재배 기술력도 뛰어나 맛과 영양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라면서 "앞으로 보성키위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품질 키위 생산에 역점을 두고 홍보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복분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비 25억원 들여 관리동·작업동·재배단지 등 도입

광양시는 봉강면 조령리 산147-1 일원의 복분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지난해 광양시가 산림청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주관하여 산림청 소유임야 5ha에 국비 25억 원을 들여 관리동, 작업동,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수확물 가공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그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재배단지를 공익성, 지역성, 비영리성의 원칙으로 공동 생산과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광양햇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광기)'이 창립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향후 복분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태욱 산림소득과장은 "복분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도움이 컸다"며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인 신품종(복분



자)을 대량생산하고 보급해 농·산촌 소득증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아랫장, 오는 27일 임시 휴장

코로나19 예방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결정



전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 예정된 5일장을 자발적으로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순천시와 아랫장변영회, 노점협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순천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임시휴장을 결정하고 점포 상인뿐만

아니라 노점상까지 휴장에 동참할 계획이다.

순천 아랫장변영회 천세두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발적 휴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자발적으로 휴장하기로 결정해 주어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물적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남2지구 상가 상인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마스크